

신경증,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어머니 문단기의 매개효과: 전업모와 취업모 비교*

정혜림†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신경증과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관계에서 어머니 문단기 행동이 이를 매개 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학령기 이전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전업모 169명과 취업모 134명을 대상으로 리서치 회사를 통해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Mplus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신경증과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어머니 문단기와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또한, 어머니 문단기가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도 증가하였다. 전업모와 취업모 비교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업모가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취업모보다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문단기를 더 하지도 않았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지도 않았다. 부스트래핑으로 매개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신경증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문단기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고 부모역할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배우자와 협력적인 공동양육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신경증,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문단기, 전업모, 취업모

* 본 연구는 정혜림(2018)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정혜림. E-mail: selenajng29@gmail.com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4.9%에 육박하고 있다(통계청, 2017). 이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의 평등한 분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하루 평균 남성은 40분, 여성은 194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각과 행동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통계청, 2016). 또한, 최근 여가부가 실시한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문제 1순위로 23.4%가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를 꼽았다(최유진, 2016). 다시 말해,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함께 가사와 양육 참여에 대한 양성평등문화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주도로 가사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기혼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 다중역할을 소화하면서 두 역할을 모두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이현미, 2018). 어머니의 경우 부모로서 정체성을 아버지보다 더 크게 지각하기 때문에(Stevenson, Fabricius, Cookston, Parke, Coltrane, Braver, & Saenz, 2014) 어머니로서 역할에 더 큰 책임감을 느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된다. 이와 같은 양육스트레스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할 뿐 아니라(노성향, 2014), 어머니로서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위축된 행동을 보여 자녀의 정서와 행동에도 문제를 낳을 수 있다(정선영, 2019). 이렇듯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변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활발한 사회진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어머니가 전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로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취업모의 경우 일과 가사, 자녀양육과 같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비교적 가정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전업모와는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모의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선희, 박정운, 2012). 양육스트레스에 속하는 양육죄책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전업모에 비해 부정적 양육행동과 미숙한 부모역할로 인한 죄책감보다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물리적인 교류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심리적 죄책감을 전업모보다 크게 느꼈다는 결과가 있었다(성정원, 2010). 이런 점에서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type A 행동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비교 연구(Forgays, Ottaway, Guarino & D'Alessio, 2001)에서 취업여부 자체는 양육스트레스의 어떠한 영역에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다. 취업모와 전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비교 연구(조금숙, 조증열, 2004)에서도 취업여부 자체가 어머니

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취업모와 전업모 집단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Belsky, Crnic과 Woodworth(1995)의 연구에서 신경증이 부모의 양육을 예측하는 일관된 변인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은 성격 특성의 5요인 중 하나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쉽게 우울하고 불안해지며 지나치게 걱정 근심을 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어머니의 신경증적인 특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신경증이 높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쉽게 불안해지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며(송민정, 한세영, 2011), 우울한 성향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양육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더 불안해하고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양육스트레스를 크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김선희, 박정윤, 2012)는 어머니의 신경증적인 특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는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어떤 사건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지의 여부는 유기체가 환경적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길연하, 1996; La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스트레스의 원인보다 신경증과 같은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머니의 신경증적인 특성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경증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간섭이 많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소연, 2021)를 볼 때, 어머니의 신경성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경증적인 특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Nigg & Hinshaw, 1998)가 보고되고 있다. 자녀가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이해와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을 터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외에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이보선, 2015)를 꼽을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사회문화적으로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여성이 주양육자라는 신념이 강하다. 모든 여성이 본능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있고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집중적으로 받아야한다는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신념을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라고 한다(이재경, 조영미, 민가영, 박홍주, 이박혜경, 이은아, 2007; Hays, 1996; Liss, Schiffrin, Mackintosh, Miles-McLean, & Erchull, 2013).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는 Hays(1996)가 개념화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어머니가 선천적으로 자녀양육에 능력이 뛰어나며 여성의 역할 중에서 어머니노릇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다(이보선, 2015 재인용; Hays, 1996).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며 자녀

에게 집중하고 관여하는 양육태도를 보인다. Rizzo, Schiffrin과 Liss(2013)의 연구에서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일차적인 양육자라는 믿음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며 양육을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우울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을 인식할수록 더 큰 양육죄책감을 느낀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성정원, 2010).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금숙과 조중열(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업모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던 반면 취업모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모성 이데올로기 수용 수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모성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발전된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는 현대 사회의 여성에게 양육에 대한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양육 죄책감을 일으켜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오유미, 2015). 이렇듯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일관된 보고가 있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신경증과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경증과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임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서우경과 김도연(2013)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태도가 심리적

변인으로 고려된 바 있다. 타고난 성격에 해당하는 신경증적 특성과 모성 이데올로기를 비롯해 가족과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가 적은 안정적인 변인으로 간주할 때(정선영, 2019), 신경증과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는 독립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부모공동양육이란 부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Feinberg, 2003), 이 과정에서 서로의 양육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동 및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Schoppe-Sullivan, Brown, Cannon, Mangelsdorf, & Sokolowski, 2008; Van Egeren & Hawkins, 2004). 현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로 남성들이 자녀양육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여성의 주도로 자녀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Pedersen & Kilzer, 2014). 저조한 남성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확인되었다(유희숙, 이유미, 2017).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gatekeeping)'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지지하는 행위인 문열기(opening)와 방해하는 행위인 문닫기(closing)로 구분된다(유희숙, 이유미, 2017; 조윤진, 2017; Schoppe-Sullivan et al., 2008).

어머니 문열기 역할은 격려하는 행동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며 아버지도 양육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다(이혜민, 한유진, 2019). 반면 어머니 문닫기 역할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비난, 불평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제하여 공동양육을 어렵게 한다(Kulik & Tsoref, 2010). 이러한 문닫기 역할을 하는 이유는 주로 여성에게 내재화된 전통적인 가치관과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

운 가치관의 갈등에 의해 설명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필요로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자녀 양육을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여 양가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문단기 행동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Allen & Hawkins, 1999). 이러한 어머니 문단기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미경,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2013). 따라서, 어머니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아버지의 낮은 양육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사되고 있기 때문에(Doherty, 1991),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문단기 행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머니 문단기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그 중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과 부모역할신념과 같은 개인심리적 변인이 문지기 역할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조운진, 2017)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신경증과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를 문단기 행동의 예측요인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신경증적인 특성은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Prinzie, Stams, Dekovic, Reijntjes와 Belsky(2009)가 진행한 부모의 성격의 5요인과 양육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신경증이 높을수록 더 부정적이고, 침입적인 그리고 과잉통제적인 양육과 관련이 있었다. 반대로 신경성이 낮을수록 따듯함과 행동적인 조절, 그리고 자녀에게 더 높은 자율성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성을 보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신경증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특성이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관련성을 보고하였다(조운진 2017; Cannon, Schoppe-Sullivan, Mangelsdorf, Brown, & Szweczyk Sokolowski, 2008; Schoppe-Sullivan, Altenburger, Lee, Bower, & Kamp Dush, 2015).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불안, 신경증, 우울 등)는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공동양육 활동에서 정서 조절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협력적인 양육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방해하는 문단기 행동을 나타나게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신경증이 공동양육 상황에 있어서 문단기 행동을 증가시켜 결국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가 가진 부모역할신념은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제안되어 왔다(Cannon et al., 2008; De Luccie, 1995; Kulik & Tsoref, 2010).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사와 양육을 함으로써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에 남성이 양육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양육참여를 통제하고, 계획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운진, 임인혜, 2016; Schoppe-Sullivan, et al., 2008). Cannon 외(2008)연구에서 어머니가 출산 전에 더 전통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질수록 즉,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수행을 낮게 평가할수록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전통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여성은 양육을 자신이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공동양육의 가능성을 줄이고 양육부담은 늘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Rizzo et al., 201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 문단기가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신경증, 집중적인 부모양육 태도, 어머니 문단기,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신경증, 집중적인 부모양육 태도, 어머니 문단기,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신경증과 집중적인 부모양육 태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관계에서 어머니 문단기가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학령기 이전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전업모와 취업모 3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303명 중 전업모는 169명(56%), 취업모 134명(44%)이었다. 전업모의 평균 연령은 36.06세($SD=4.08$)이며 취업모의 평균 연령은 36.45세($SD=3.51$)이었다. 서울 및 경기권에 거주하는 전업모 99명(58.6%), 취업모는 78명(58.2%)이었으며 그 외 지역에는 전업모 70명(41.4%), 취업모 56명(41.8%)으로 두 집단 모두 비슷한 백분율을 보였다. 전업모의 자녀 수는 평균 2.67명($SD=0.71$)이었으며 취업모의 경우 자녀 수의 평균은 2.59명($SD=0.64$)이었다. 두 집단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이 전업모 93명(55%), 취업모 83명(61.9%)으로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았다. 돌봄 형태에 있어서 전업모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63.3%) 보육 시설에 맡기는(36.7%) 형태로 나타난 반면, 취

업모의 경우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7.5%)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14.2%) 조부모(19.4%) 또는 도우미(3.7%) 등의 더 다양한 돌봄 형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가사 양육시간에 있어서 전업모는 10.34시간($SD=4.26$)을 할애하였으며 취업모의 경우 평균 4.73시간($SD=1.78$)을 할애하였다. 전업모 집단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 93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모 집단은 400만원 이상에서 600만원 미만이 78명(58.2%)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모 134명 중 128명(95.5%)이 정규직이며 모두 풀타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이 100명(74.6%)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모의 대부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92.5%), 주당 5일(94%)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융통성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3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적다'가 28명(20.9%), '많다'가 22명(16.4%) 순이었다. 배우자의 수입을 제외한 취업모의 월평균 개인수입은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연구절차

연구자료는 2018년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온라인 리서치 전문 회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회사에서 연구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대상에게 이메일 및 모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 진행되었다. 설문지에는 어머니의 나이, 자녀 수, 학력, 취업여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문항과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문단기, 신경증,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척도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im과 Kang (1997)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하여 수정 보완한 한국형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 문항으로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등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문항으로는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등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다칠까봐 걱정된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형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의미한다. 하위요인의 Cronbach α 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86,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75,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82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문단기

Van Egeren(2000)이 개발하고 Schoppe-Sullivan 등(2015)이 수정 보완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 척도를 조운진과 임인혜(2016)가 한국판 어머니 문지기역할 척도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문단기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단기 문항으로는 '나는 남편이 하던 일을 중간에 가져와서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 '나는 남편의 양육방식을 비난한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6점 리커트식 척도로 '전혀 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자주 한다' 6점까지 평가한다. Cronbach α 는 .87으로 확인되었다.

신경증

Goldberg(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척도를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경증 척도는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예로는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쉽게 불안해진다.' 등을 포함한다.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며 Cronbach α 는 .90으로 확인되었다.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척도(Intensive Parenting Attitudes Questionnaire; IPAQ)는 Hays (1996)와 Wall(2010)의 연구를 기초로 Liss 등 (2013)이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이보선 (2015)이 한국판 척도 타당화를 위해 번안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준형(2017)이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들은 본질주의(Essentialism), 양육충만(Fulfillment), 자녀발달촉진(Stimulation), 양육부담(Challenging), 자녀중심(Child-Centered)으로 하위요인별로 3-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문항내용은 '아빠가 중요하다더라도 궁극적으로 아이들은 엄마를 더 필요로 한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 충만감을 느껴야 한다.', '자녀가 어떻게 자랄 지는 결국 엄마에게 달려있다.' 등이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본질주의에 1번, 16번 그리고 양육충만에 10번이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문항들이 하위요인의 신뢰도와 전체 신뢰도를 많이 떨어트리는 결과를 보였으며 제거하였을 때 신뢰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져 심리학과 박사 과정 2명과 논의 끝에 이 문항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하위요인의 Cronbach α 는 본질주의(Essentialism) 0.75, 양육충만(Fulfillment) 0.64, 자녀발달촉진(Stimulation) 0.60, 양육부담(Challenging) 0.63, 자녀중심(Child-Centered) .57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인들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집단 분석을 통해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관계에서 전업모와 취업모를 비교하고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1.0과 Mplu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기술통계 분석 결과

주요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N=303)

	전업모 (N=169)						취업모 (N=134)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왜도	첨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왜도	첨도
신경증	3.33	.72	1.20	5.00	-.17	-.11	3.25	.61	1.80	4.80	-.11	-.17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3.78	.37	2.59	4.50	-.58	.62	3.70	.38	2.77	4.59	.01	-.50
어머니 문단기	2.87	.83	1.13	5.50	.45	.04	2.89	.84	1.80	4.80	-.42	.05
양육스트레스	2.54	.43	1.22	3.63	.15	.04	2.50	.41	3.94	2.50	.20	.57
일상적 스트레스	2.61	.50	1.25	3.83	.06	-.03	2.52	.47	1.08	3.92	.20	.61
타인양육 죄책감	2.46	.47	1.13	3.75	-.02	.29	2.39	.47	1.25	4.00	.21	.39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2.52	.49	1.08	3.67	.02	-.04	2.56	.46	1.33	3.92	.23	.11

왜도와 첨도를 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정규성이 충족되었다(Kline, 2005).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신경증,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어머니 문단기, 양육스트레스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업모의 경우, 신경증은 어머니 문단기($r=.33, p<.01$), 양육스트레스($r=.55,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신경증($r=.19, p<.05$), 어머니 문단기($r=.17, p<.05$), 양육스트레스($r=.23,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 문단기는 양육스트레스($r=.46,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신경증과 양육스트레스($r=.55, p<.01$)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취업모의 경우, 신경증은 어머니 문단기($r=.18, p<.05$), 양육스트레스($r=.51, p<.0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신경증($r=.19, p<.05$), 어머니 문단기($r=.19, p<.05$), 양육스트레스($r=.23,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 문단기는 양육스트레스($r=.38,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집단 간 주요 변인의 평균비교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간의 주요변인들과 하위요인들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중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변인만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업모의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평균점수는 3.78이었고, 취업모의 평균 점수는 3.70으로 측정되었다. t 값은 2.005이며, 절대값이 1.96보다 크므로 유의하고, p 값도 .046으로 유의수준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N=303)

변인	1	2	3	4	4-1	4-2	4-3
1. 신경증	1	.19*	.18*	.51**	.40*	.38*	.53*
2.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19*	1	.19*	.23*	.21**	.17**	.22**
3. 어머니 문단기	.33*	.17**	1	.38**	.30**	.37**	.33**
4. 양육스트레스	.55**	.23**	.46**	1	.88**	.88**	.87**
4-1. 일상적 스트레스	.50**	.20**	.34**	.89**	1	.70**	.59**
4-2. 타인양육 죄책감	.39**	.18*	.46**	.85**	.67**	1	.69**
4-3.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53**	.22**	.43**	.89**	.64**	.65**	1

** $p<.01$, * $p<.05$, 대각선 아래 = 전업모(N=169), 대각선 위 = 취업모(N=134)

표 3. 주요 변인들의 집단 간 평균차이

(N=303)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전업모 (N=169)	취업모 (N=134)		
신경증	3.33 (.720)	3.26 (.611)	.864	.388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3.78 (.369)	3.70 (.368)	2.005	.046*
어머니 문단기	2.87 (.826)	2.92 (.855)	-.504	.615
양육스트레스	2.54 (.427)	2.52 (.421)	.421	.674
일상적 스트레스	2.61 (.493)	2.52 (.467)	1.617	.107
타인양육 죄책감	2.46 (.471)	2.40 (.483)	1.022	.308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2.52 (.490)	2.59 (.484)	-1.285	.200

*p<.05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전업모와 취업모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요인분석(multiple-group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CFI=.949, TLI=.929, RMSEA=.085, SRMR=.054로 모형적합도가 수용 가능하여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간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태동일성이 성립하여 두 집단 간 요인 부하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측정동일성 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CFI=.951, TLI=.929, RMSEA=.080, SRMR=.056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여 전업모와 취업모 두 집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 검정을 통해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집단의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차이가 작은 경로부터 순차적으로 동일한 제약을 가하는 방법은 생략하였다. 구조 경로 동일성의 적합도 검증 결과 CFI=.953, TLI=.944, RMSEA=.076, SRMR=.058로 나타나 적합하기 때문에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간 구조 경로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두 집단 간 전체 경로가 동일하게 고정되었고 집단 간의 차이가 없으므로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은 생략하였다.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모수 추정치와 비표준화된 모수 추정치,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의 각 경로계수의 표준화된 추정치를 표 4,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결과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보았을 때,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 양육스트레스와 집중적인 부모

표 4.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간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전업모			취업모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p</i>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p</i>
신경증 → 양육스트레스	.508	.498	***	.508	.433	***
신경증 → 어머니 문단기	.464	.336	***	.464	.274	***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 양육스트레스	.139	.095	.155	.139	.104	.155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 어머니 문단기	.214	.108	.137	.214	.110	.137
어머니 문단기 → 양육스트레스	.232	.314	***	.232	.3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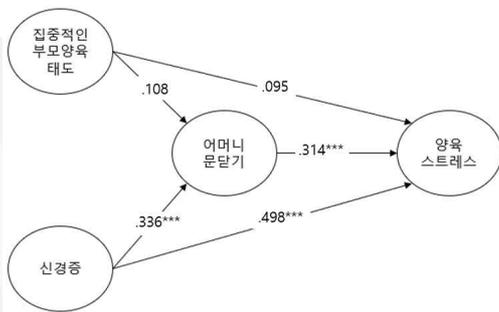


그림 1. 전업모 집단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양육태도 → 어머니 문단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로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신경증 → 양육스트레스 경로의 경우 추정치가 .508로 유의도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신경증 → 어머니 문단기 경로의 경우 추정치가 .464로 유의도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어머니 문단기 → 양육스트레스 경로의 경우 추정치가 .232로 유의도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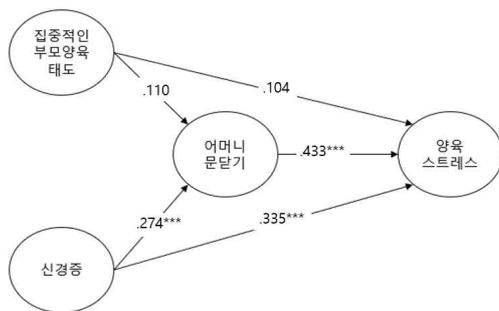


그림 2. 취업모 집단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매개모형 검증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hrout 과 Bolger(2002)이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의 절차를 따라 원자료(N=303)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표본을 만들어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간접효과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김수영, 2016).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표 5에 제

표 5.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경로	전체효과	간접효과
전업모	신경증 → 양육스트레스	.603*** (.478~.729)	-
	신경증 → 어머니 문단기 → 양육스트레스	-	.105*** (.047~.164)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 양육스트레스	.129 (-.010~.268)	-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 어머니 문단기 → 양육스트레스	-	.034 (-.012~.080)
취업모	신경증 → 양육스트레스	.525*** (.386~.664)	-
	신경증 → 어머니 문단기 → 양육스트레스	-	.092*** (.043~.141)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 양육스트레스	.140 (-.011~.292)	-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 어머니 문단기 → 양육스트레스	-	.037 (-.012~.086)

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정 결과,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모두 신경증에서 양육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업모 집단 $\beta = .603, p < .001, 95\% \text{ CI } .478 \sim .729$ / 취업모 집단 $\beta = .525, p < .001, 95\% \text{ CI } .386 \sim .664$), 신경증에서 어머니 문단기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업모 집단 $\beta = .105, p < .001, 95\% \text{ CI } .047 \sim .164$ / 취업모 집단 $\beta = .092, p < .001, 95\% \text{ CI } .043 \sim .141$). 결론적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신경증과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문단기에 의해 매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신경증과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와 어머니 문단기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변인들 관계에 있어서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신경증,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어머니 문단기,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확인하였다. 신경증과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어머니 문단기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신경증과 같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는 공동양육 활동에서 정서

조절을 어렵게 하여 부정적인 양육행동인 문단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조윤진, 2017; Schoppe-Sullivan et al., 2015), 부모역할신념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일수록 문단기 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Cannon et al., 2008). 신경증과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양육스트레스와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적인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는 선행연구(송민정, 한세영, 2011)와 일관되며, 어머니의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우울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Rizzo et al., 2013).

어머니의 문단기 행동이 심리적 건강과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최미경 외, 2013)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어머니 문단기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신경증은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와 정적상관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성이 주된 양육자라는 신념은 양육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울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결과(이보선, 2015)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신경증의 하위요인인 우울과 관련성이 있을지라도 신경증이 더 앞선 요인으로 보이며, 신경증과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추후 요구된다.

둘째,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간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 비교를 한 결과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며,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높았다. 이는 전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가 취업모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조숙, 2013; Hattery, 2001). 모성이 이데올로기가 더 강한 전업모는(성정원, 2010; Odenweller & Rittenour, 2017)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게 일을 하기보다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의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두 집단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어머니 문단기를 더 하지도 않았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지도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Johnston과 Swanson(2006)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지적 일관성 이론에 따라 어머니들이 자신의 모성 이데올로기 신념과 취업 결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모의 경우 자신의 취업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모성 이데올로기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업모에게 좋은 엄마는 자녀와 항상 같이 있어주는 것일 수 있지만 취업모는 자신의 취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녀와의 질적 상호작용을 잘하는 것을 좋은 엄마로 재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취업상태와 모성 이데올로기를 조화시킴으로써 그들의 행동과 스트레스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보선(2015)의 연구에서 한국 어머니 대상으로 타당화한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는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었거나 연구자의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하위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양육을 함으로써 느끼는 충만감과 같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과는 상반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결과가 분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모성 이데올로기라는 사회문화적 신념을 측정하다보니 서구와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요인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육에 대한 전통적인 신념이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연구들이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신경증,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 문단기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먼저, 신경증과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문단기에 의해 매개되었다. 어머니의 신경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문단기 행동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신경증과 같은 심리적으로 낮은 기능을 가진 어머니가 공동양육 상황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Schoppe-Sullivan et al., 2015)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Prinz et al.,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불안이 높고 정서적으로 쉽게 예민하며 근심 걱정이 많은 성향의 어머니는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여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보이면서 배우자와 협력적인 공동양육을 위한 행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머니들의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어머니 문단기는 매개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어머니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보다 심리적 기능 수준과 더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choppe-Sullivan et al., 2015). 즉, 심리적으로 어머니가 잘 기능하느냐가 어머니 문지기 역

할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모형에 적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Hattery(2001)의 주장처럼 어머니들이 자신의 모성 이데올로기 수용 정도에 따라 취업상태를 결정하고 또 취업 유무에 따라 모성의 개념을 재구성한다고 간주할 때, 어머니가 가진 성역할태도와 현재의 역할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얻은 결과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부모양육태도보다 어머니의 정서적인 문제가 양육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가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공동양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감소시켜 양육부담이 늘어나 더 큰 양육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개인이 가진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키는 과정을 통해 적응적인 공동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히고 이들이 어떻게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 문단기는 어머니의 신경증과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매개하였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태가 개인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공동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용적 함의를 갖는다. 어머니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켜 아버지와 적절한 공동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령기 이전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전업모와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약이 있다. 자녀의 연령별로 신경증,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문단기 행동과 양육스트레스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다양한 연령의 자녀에 대하여 연구를 확장할 수 있겠다. 전업모의 경우, 순수 전업모인지 경력단절로 인한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아버지와 함께 비교하여 다룰 필요성이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가구의 늘면서 아버지 또한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또는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포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령, 소득수준, 학력 등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연령, 소득수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스트레스가 다를 수 있음을 언급된 바(이준형, 2017), 추후에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응답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였거나 부주의하게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나 어머니 문단기에 대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

게 여겨지는 방향에 따라 응답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설문 이외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와 문단기 행동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희, 박정윤 (2012). 취업모의 성격특성과 자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0(8), 41-52.
- 김소연 (2021).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길연하(1996).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지각과 대처: 외향성과 신경증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노성향 (2014).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3), 45-59.
- 서우경, 김도연 (2013).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121-136.
- 성정원 (2010). 보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된 변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선영. (2019). 모성 이데올로기, 돌봄서비스 이용,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감 - 영유아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 *Family and Culture*, 31(1), 140-165.
- 조금숙, 조증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 조숙 (201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수용정도와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조윤진 (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부모 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역할, 부부 공동 양육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윤진, 임인혜 (2016). 한국판 어머니 문지기 역할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육아지원 연구, 11(2), 33-57.
- 최미경,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2013). 부모공동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 가정과삶의질학회, 31(2), 25-39.
- 오유미 (2015). 취학 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죄책감. 흥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희숙, 이유미 (2017).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결혼만족도 및 완벽성향 간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1(3), 283-307.
- 이보선 (2015). 한국판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 척도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재경, 조영미, 민가영, 박홍주, 이박혜경, 이은아 (2007). 여성학. 서울: 미래 M&B.
- 이준형 (2017).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학령기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와 자녀수반 자기 가치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현미 (2018. 2. 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2&aid=0003247193> 에서 2018.2.1. 자료 얻음.
- 이혜민, 한유진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간 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37(3), 143-153.
- 최유진 (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5-786.
- 통계청 (2016). 혼인상태별 및 맞벌이상태별 가사노동시간.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7). 맞벌이가구 비율. 서울: 통계청.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199-212.
- Belsky, J., Crnic, K., & Woodworth, S. (1995). Personality and parenting: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transient mood and daily hassles. *Journal of Personality, 63*(4), 905-929.
- Cannon, E. A., Schoppe-Sullivan, S. J., Mangelsdorf, S. C., Brown, G. L., & Szwedczyk, M. (2008). Parent characteristics as antecedents of maternal gatekeeping and fathering behavior. *Family Process, 47*, 501-519.
- De Luccie, M. F. (1995). Mothers as gatekeepers: A model of maternal mediators of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 115-132.
- Doherty, W. J. (1991). Beyond reactivity and the

- deficit model of manhood: A commentary on articles by Napier, Pittman, and Gottm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17, 29-32.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3(2), 95-131.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In I. Mervielde, I. Deary, F. De Fruyt, & F. Ostendorf (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 7, pp. 7-28). Tilburg, The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Press.
- Hattery, A. J. (2001). *Women, work, and families: Balancing and weaving*. London: SAGE.
-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Johnston, D. D., & Swanson, H. D. (2006). Constructing the "Good Mother": The Experience of Mothering Ideologies by Work Status. *Sex Roles*, 54(7-8), 509-519.
- Kim, K. H., & Kang, H. K. (1997). Research: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9), 141-150.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ulik, L., & Tsoref, H. (2010). The entrance to the maternal garden: environmental and personal variables that explain maternal gatekeeping. *Journal of Gender Studies*, 19(3), 263-27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 Co.
- Liss, M., Schiffrin, H. H., Mackintosh, V. H., Miles-McLean, H., & Erchull, M. J.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quantitative measure of intensive parenting attitud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5), 621-636.
- Odenweller, G. K. & Rittenour E. C. (2017). Stereotypes of Stay-at-Home and Working Mothers.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82(2), 57-72.
- Nigg, J. T., & Hinshaw, S. P. (1998). Parent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pathology associated with antisocial behaviors in childhoo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2), 145-159.
- Pedersen, D. E., & Kilzer, G. (2014). Work-to-Family Conflict and the Maternal Gatekeeping of Dual-Earner Mothers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5(2), 251-262.
- Prinzie, P., Stams, G. J. J. M., Deković, M., Reijntjes, A. H. A., & Belsky, J. (2009). The relations between parent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arenting: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2), 351-362.
- Schoppe-Sullivan, S. J., Altenburger, L. E., Lee, M. A., Bower, D. J., & Kamp Dush, C. M. (2015). Who are the gatekeepers? predictors of maternal gatekeeping. *Parenting*, 15(3), 166-186.

- Schoppe-Sullivan, J. S., Brown, L. G., Cannon, A. E., Mangelsdorf, C. S., & Sokolowski, S. M. (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tevenson, M. M., Fabricius, W. V., Cookston, J. T., Parke, R. D., Coltrane, S., Braver, S. L., & Saenz, D. S. (2014). Marital problems, maternal gatekeeping attitudes,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0*(4), 1208-1218.
- Rizzo, K. M., Schiffrin, H. H., & Liss, M. (2013). Insight into the Parenthood Paradox: Mental Health Outcomes of Intensive Mother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5), 614-620.
- Van Egeren, L. A. (2000). Parental gatekeeping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 1차원고접수 : 2022. 04. 12.
심사통과접수 : 2022. 05. 30.
최종원고접수 : 2022. 06. 30.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Gate-closing on relationships among Neuroticism, Intensive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Stress: A Comparison of Full-time Mothers and Working Mothers

Hyerim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gate-closing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among neuroticism, intensive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stress and its difference between full-time mothers and working mothers. A sample of 169 full-time mothers and 134 working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preschool children were asked to complete the self-report survey measured neuroticism, intensive parenting attitudes, maternal gate-closing and parenting stress. Mplus was used to analyz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he result revealed that higher neuroticism and more intensive parenting attitudes were related to more maternal gate-closing and increased parenting stress. Also, more maternal gate-closing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parenting stress. The result of comparisons of full-time mothers and working mother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Additionally, although full-time mothers adopted more intensive parenting attitudes, they did not show more gate-closing behaviors and more parenting stress. The mediation effect of maternal gate-closing was observ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ism and parenting str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esent research implied that parenting stress could be reduced through collaborative co-parenting by alleviating negative emotion and helping to think flexibly on their rigid parental role.

Key words : neuroticism, intensive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stress, maternal gate-closing, full-time mother, working mother